

Working Paper 2017-01

고교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

임언 · 윤형한 · 이수정 · 정혜령

2017. 2. 24

K R I V E 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고교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

임언 · 윤형한 · 이수정 · 정혜령¹⁾

< 목 차 >

I. 서론	1
II.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	3
III. 연구 방법	8
IV. 분석 결과	11
V. 결론 및 논의	17
참고문헌	20

연구의 개요

-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검토하고 대비시키는 가운데, 이상적인 고교 직업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특성화고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교사들은 현재 정책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직업교육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보다 더 직업주의적으로 직업교육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음. 지나친 직업교육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과거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항상 자주 변경되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함.
- 주제어: 직업교육 목적, 직업주의, 신직업주의, 비판적 임파워먼트, 힘있는지식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 윤형한 · 이수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혜령

I. 서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고졸 취업과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현상성이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그 결과 2009년 직업교육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73.5%까지 대학에 진학하던 것에서 급격히 변화해서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학률이 36.6%로 낮아지고, 취업률은 46.6%까지 증가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5.9.22.). 이와 같이 괄목할만한 진학률의 감소는 취업을 강조해온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고,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의 주요 사업으로 재직자 중심의 일학습병행제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실행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제도를 모델로 디자인되었다. 여기에는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가운데, 도제제도를 축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독일과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이 낮으며, 그 이면에서는 도제제도가 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평가(이동임 외, 2015)가 작용했다. 하지만 독일과 스위스, 덴마크와 같이 도제훈련을 중심축으로 직업교육이 운영되어온 나라들은 오랜 동안 직종별 숙련의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산업체 주도로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은 산업발전 시기에 정부주도로 국가 전략 산업을 위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거나 대기업 사내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숙련인력을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숙련 형성의 역사가 다른 체제이다. 따라서, 도제 훈련을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고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요구되었다. 도제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과거에도 1994년부터 약 10여 년간 2·1체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적이 있으나, 정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이용순 외, 2001).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흐른 후, 이제 다시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제도를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 정책관계자, 기업, 그리고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은 커다란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 변환 속에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고교 단계 직업교육은 졸업 후 취업이 원활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2015년 기준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36.6%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은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현실적으로 혼란 또는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10년 직업교육의 방향을 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 2·1 체제가 퇴색하는 가운데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원하지만, 직업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실업계고등학교(당시의 직업계 고등학교 명칭)에 대한 기피가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 정원 외 선발 허용, 수능 직업탐구 신설을 통해서²⁾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했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 전문계 고교 정책을 새롭게 제시했다. 당시 외현적인 명분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숙련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교 직업교육은 보다 심화된 직업교육, 즉 고등교육을 통한 숙련 수준 향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병욱, 2005).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많은 학생들을 직업계 고등학교로 유인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 과다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이러한 과잉학력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고졸취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이었고, 그 흐름은 박근혜정부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방향에 의해서 급격하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 강조되어야 할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없는 것인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중요성이 변화할 수는 있더라도 직업교육 본연의 방향과 목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는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직업교육의 주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직업교육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 집단, 교사 등 다양하지만, 교사는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그들이 교육 관련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이행하고,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설계하고 실천하며,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마상진·나승일, 2004; 장원섭, 2001).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을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이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 방안은 2001년 1월에 발표된 실업교육 육성 방안에서 제시됨.

II.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

1. 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

직업주의(Vocationalism)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Snedden(1914)이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은 본질적인 목적이 다르며, 직업교육은 특정한 업무를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제조업의 발달로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계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구체적인 스킬 습득을 강조하며 직업교육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었다. 다만,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별도의 기관에서 제공하자는 그의 주장은 예산과 정치적인 이유로 채택되지 않고, 한 학교 내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Labaree, 2010). Dewey(1916)는 Snedden을 비판하면서 특수한 기능 습득을 강조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자발성과 삶에 대한 자기 주도성을 강조했으나, 그의 견해는 그 당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구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제의 발달, 지식정보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구체적인 기능을 습득한 인력보다는 유연한 직업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Dewey(1998)의 사상이 다시 주목받았다. Dewey는 일을 특정 업무(job)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접근하여 ‘일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occupations)’이 아니라 ‘일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occupations)’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을 통한 교육을 강조했지만 특정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장원섭, 2006). 이는 직업교육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이해한 것이며, 노동자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이류의 교육을 제공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용주들의 이익에 굴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탈맥락화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함으로써 일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Grubb, 1996; Lewis, 1998). Dewey의 사상적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미래에 직면하게 될 삶의 일반적인 역할에 관심을 둬므로

써 개인과 사회의 분리, 몸과 마음의 분리, 학습과 행함의 분리, 놀이와 일의 분리, 대학입학 교육과 직업교육의 분리를 비판했다(Grubb, 1996; 소경희, 2009).

2. 학생의 발달과 가능성의 확대로서의 직업교육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습득을 강조하는 직업주의와 폭넓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직업주의적 입장 모두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교육에서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기능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인 입장은 신자유주의의 체제 안에서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책임을 온전하게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며, 개인을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구로서 간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장원섭, 2001). 이에 장원섭(2001)은 비판적 직업교육론자들을 소개하면서 직업교육의 진정한 방향은 근로자들을 단순히 기능습득만이 아니라 일터와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사회에서 민주적 공동체에 참여하고 비판적 노동자가 되도록 하는 비판적 임파워먼트(critical empower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Lakes, 1994; 장원섭, 2001, p.134에서 재인용). 따라서 직업교육은 일터에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으로 유용한 스킬을 가진 일꾼이 아니라 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Kincheloe, 1995; 장원섭 2001, p. 135에서 재인용)

임언 외(2015) 또한 Bruner(1960), Hirst(1965), Gardner(2006), Young(2009)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교과가 가르칠 만한 의미가 충분히 있고, 그것이 학교교육의 핵심적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고교 직업교육에서도 보통교과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힘 있는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보통교과를 소홀히 가르치거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만을 가르치는 것을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교과의 목적이라고 한정할 경우, 이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보통교과 내용의 수준을 낮추고 직업생활에 연계하여 친근한 주제로만 골라서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생애 기회와 경쟁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구체적인 맥락을 넘어서는 원리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청소년 시기에 취업을 위한 스킬 습득을 강조하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적 연마를 하여 자

신의 일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동선 외(2011)도 직업교육을 특정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직업교육은 특정한 직업으로의 진입 및 이행을 위한 준비교육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직업적 책무 및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했다(최동선 외, 2011).

3.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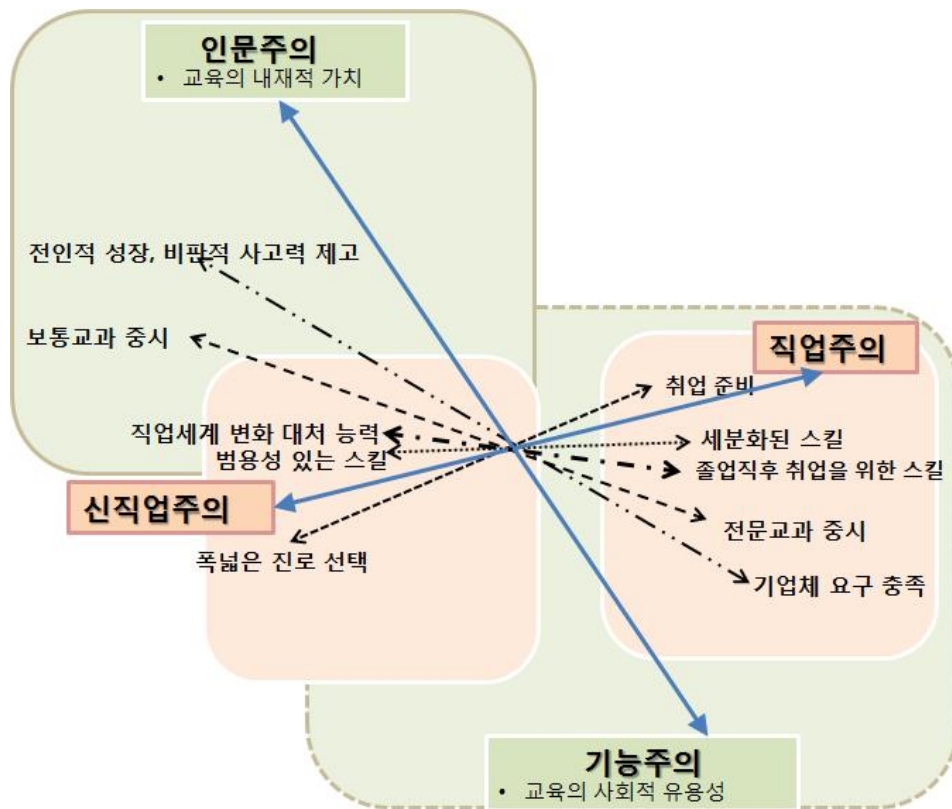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하지만 고교 직업교육의 주된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적절하게 종합하며,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견해 차이에는 복합적인 관점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직업주의는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관계에서 직업주의와 입장을 달리하고, 단기적인 노동시장 수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목적에 맞게 교육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시켜야한다는 점에서도 직업주의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 모두 교육이 갖는 경제적 기능, 즉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길러낸다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장원섭, 2001). 한편 장원섭(2001)이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하는 것이 직업교육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학생 개인의 인간적 가치의 최대 실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에 있다. 임언 외(2015)가 힘 있는 지식을 보통교과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직업교육 트랙에 있는 학생들의 생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대비시키는 시도로서 마상진·나승일(2004)은 교사의 직업교육 가치 성향을 인문주의, 기능주의, 신직업주의, 비판주의로 구분한 바 있다. 인문주의란 지적 사고능력의 강조, 기능주의는 직무수행능력, 신직업주의는 문제해결능력을, 비판주의는 비판능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직업주의는 기능주의, 임언 외(2015)가 강조한 힘있는 지식은 인문주의, 장원섭의 임파워링은 비판주의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상진·나승일은 기능주의의 개념을 좁게 한정하여 직업주의에 대응시킨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다르다. 교육의 목적에 관한 기

능주의는 장원섭(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스킬준비를 넘어서 교육의 외재적 가치와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직업주의도 기능주의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임언 외(2015)가 강조한 보통교과의 중요성은 직업교육에서 순수하게 인문주의적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애 경쟁력과 삶에서의 주체성,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전인적인 교양과 포괄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청소년 시기에 취업을 위한 스킬 습득을 강조하더라도 최대한 지적 연마를 하여 자신의 일생을 대비할 수 있는 힘있는 지식(powerful knowledge)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직업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의 목적에 관련된 주요 지향점 또는 요소들을 [그림 1]과 같이 배치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관점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차원에서 나열되기 어려우며 서로 사각을 이루는(즉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독립적이지 않은) 차원들 상에서 대립되는 개념들이 있다고 보았다. [그림 1]에서 중요한 축은 기능주의와 인문주의로 대비되는 축이다. 직업교육의 목적에서 교양적 지식과 폭넓은 시야, 비판적 인식의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 있고, 주체성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인문주의이다. 장원섭(2001)이 강조한 비판적 임파워링, Young(2009)이 강조한 힘 있는 지식, 임언 외(2015)가 직업교육에서 보통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기능주의는 고교 직업교육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제고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교육의 기능적 측면, 그 중에서도 경제적 기능을 강조한 기능주의로는 Schultz(1977)로 대변되는 인적자본론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기능주의를 직업교육에 논의에 한정해서 살펴보았을 때, 특수한 기능 교육을 강조한 Snedden(1914)의 직업주의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신직업주의가 기능주의에 속한다. 하지만, 신직업주의는 직업주의와 다르게 보통교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넓은 역량,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따라서 [그림 1]에서는 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로 대비되는 축을 설정하고, 이 축은 대부분 기능주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만, 신직업주의는 인문주의와도 약간 겹치도록 도록 배치했다. 인문주의와 기능주의, 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의 두 축은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

에 교각이 아니라 사각으로 교차된다. 두 개의 축을 이루는 구체적인 이슈들로서 직업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스킬의 구체성의 정도, 졸업 후 취업을 강조하는 정도, 기업의 요구를 중요시하는 정도에 따라서 대비되는 요소들을 배치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대비되는 요소들을 제시하면서 특성화고 교사들이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는가를 알아보고, 집단 간 견해 차이에 연관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들 간의 관계

Ⅲ. 연구 방법

1.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를 조사했다.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관한 선행 논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교 직업교육 목적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는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하며, 그것이 학생 개인의 성장과 행복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또한 졸업 직후의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준비시켜야하는가? 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상호 대치되는 관점을 대비시키는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설문에서 교사들이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교사가 전문가로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기 위하여 “귀하가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가정 아래,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있는 요소 두 개를 제시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질문했다.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두 요소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선택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즉, 고등학교 직업교육에서 ‘특정분야 기술’ 이 ‘범용성 있는 기술’ 보다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6’ 을 선택하고,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4’ 에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반면에 ‘범용성 있는 기술’ 이 ‘특정분야의 기술’ 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3’ 을 선택하고,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 에 표시하도록 했다. 평균이 3.5보다 높으면 위에 있는 항목(즉, ‘특정분야 기술’, ‘졸업 후 바로 활용할 기술’, ‘산업 및 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것’, ‘졸업 후 바로 취업’, ‘전문교과’)을 더 중요시한 것이고, 3.5보다 낮으면 아래에 있는 항목(즉, ‘범용성 있는 기술’, ‘변화하는 세계 대응’,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힘’, ‘보통교과’)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 것이다.

문항별 응답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점을 계산하여 직업주의적 목적 인식 점수로 명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주의적 목적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척도화 했다. 5개 문항의 신뢰도는 .86이다.

<표 1> 이상적인 고교 직업교육의 방향에 대한 설문 문항 및 응답지 구조

		←			→			
		매우 중요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약간 더 중요	더 중요	매우 중요	
1	범용성 있는 기술(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폭넓은 기술) 습득	1	2	3	4	5	6	세분화된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기술 습득
2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대처 능력	1	2	3	4	5	6	졸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 습득
3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교육내용을 구성	1	2	3	4	5	6	산업 및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
4	진로 선택의 폭을 가능한 한 많이 넓힐 수 있도록 준비시킴	1	2	3	4	5	6	졸업 후 바로 취업하도록 준비시킴
5	보통교과	1	2	3	4	5	6	전문교과

2. 표본 추출³⁾

전국의 25개 특성화고등학교를 표집 하여 해당 학교 교사 전체를 표본에 포함했다. 1단계로 2014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데이터(교육부교육개발원, 2015)를 기초로 지역별, 국공립별, 학교 수·학급 수·학생 수로 분류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전국 단위 모집, 높은 등록금, 전원 기숙사 생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예: 조리과학고, 디지털미디어고, 관광고, 애니고 등)와, 소규모 학교(학급 수 20미만)는 제외했다. 그다음 단계에서 학급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4개 권역)로 무선비례표집하고, 이때 전공군을 2개 군(농·생명산업과 공업, 상업·정보와 가사·실업)⁴⁾으로 구분하여 모집단 비율에 따라 25개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의 모든 교사(보통교과, 전문교과)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했다.

3)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임언 외가 2015년 수행한 연구에서 수집한 것이다. 데이터 분석은 당시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새롭게 본 연구를 위해서 실행한 것이다.

4) 수산해운 계열 학교 8개 중 6개교는 학급 수 20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고, 나머지 2개교는 모집단위가 전국 단위이므로 제외하였다. 농·생명과 공업, 그리고 **상업정보**와 가사·실업의 2개 군으로 구분한 이유는 첫째, 학교 설립유형과 지역을 고려한 상태에서 전공군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학교 사례 수가 적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무선표집에 따른 남녀 성별 격차가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남학생이 많은 전공군 2개와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많은 전공군 2개로 나누어 표집하고, 모집단 비율에 따라 사례 수를 할당함.

조사 방법은 전화로 사전 작업한 후 우편으로 조사를 실행했다.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⁵⁾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교사는 1253명이다. 모집단의 성비(남성:여성; 68.4%:31.6%)와 비교할 때 표본 집단의 성비는 53.6%:45.1%로서 여교사가 약간 더 많이 표집되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사의 비율이 모집단에서는 0.77인데 비하여 표본 집단에서는 0.81로 보통교과 교사가 근소하게 많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와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했다.

<표 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자	672	53.6	직급	교감	6	0.5
	여자	565	45.1		수석교사	7	0.6
	무응답	16	1.3		부장교사	293	23.4
연령	30세 미만	131	10.5		평교사	888	70.9
	30대	301	24.0		임시직교사	42	3.4
	40대	246	19.6		무응답	17	1.4
	50대	467	37.3		계열	보통교과	549
	60세 이상	51	4.1	전문교과		704	56.2
	무응답	57	4.5	교직경력	5년 미만	226	18.0
최종 학력	학사	674	53.8		5년~10년 미만	159	12.7
	석사·박사	563	44.9		10년~20년 미만	224	17.9
	무응답	16	1.3				

IV. 분석 결과

1.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교사 인식 집단 간 차이

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사의 차이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교사가 전문가로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기 위하여 “귀하가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진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상호 대립적인 측면이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위의 항목들의 공통점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현재 노동시장의 요구에 충실하고,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이행을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아래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미래 경쟁력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이며 폭넓은 발달의 중요성을 잃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위의 항목들이 직업교육의 목적을 직업주의(Vocationalism)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면, 아래 항목은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 또는 인문주의에 입각한 힘 키우기(Empowerment)의 입장을 드러낸다. 모든 항목에서 3.5보다 높아서 교사들은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위의 항목을 아래 항목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즉각적인 노동시장 요구에 부응하고자하는 직업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직업주의에 치우친 정도는 보통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교과 교사는 보통교과 교사에 비해서 범용성 있는 기술(관련 산업에서 필요한 폭넓은 기술) 습득보다 세분화된 특정분야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 같은 맥락에서 졸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보다 산업 및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가능한 한 많이 넓힐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보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통교과 보다 전문교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고교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간의 인식 차이

교육 방향	교과	N	평균	표준편차	t
특정분야 기술 vs 범용성 있는 기술	보통교과	535	3.81	1.50	-3.16 **
	전문교과	691	4.09	1.61	
졸업 후 바로 활용할 기술 vs 변화하는 직업세계 대응	보통교과	536	3.86	1.63	-4.38 ***
	전문교과	691	4.27	1.61	
산업 및 기업체 요구 vs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	보통교과	541	3.46	1.49	-6.34 ***
	전문교과	690	4.01	1.53	
졸업 후 바로 취업 vs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힘	보통교과	537	3.67	1.51	-5.03 ***
	전문교과	687	4.18	1.57	
전문교과 vs 보통교과	보통교과	532	4.05	1.14	-11.01 ***
	전문교과	688	4.72	0.96	

주1: * .01<p≤.05, ** .001<p≤.01, *** p≤.001

주2: 평균은 두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중앙값인 3.5보다 크면 위 항목이 더 중요, 3.5보다 작으면 아래 항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냄

나. 성별 차이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서 직업교육의 목적을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개 항목에서 일관되게 남교사는 여교사에 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와 적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서 담당교과의 영향력을 배제한 후에도 성별은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 고교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교사 인식의 성별 차이

교육 방향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특정분야 기술 vs 범용성 있는 기술	남자	663	4.05	1.63	2.082 *
	여자	547	3.86	1.49	
졸업 후 바로 활용할 기술 vs 변화하는 직업세계 대응	남자	661	4.22	1.62	2.983 **
	여자	551	3.94	1.62	
산업 및 기업체 요구 vs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	남자	658	3.92	1.54	3.852 ***
	여자	558	3.59	1.51	
졸업 후 바로 취업 vs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힘	남자	658	4.08	1.59	3.458 ***
	여자	552	3.76	1.52	
전문교과 vs 보통교과	남자	656	4.56	1.11	4.482 ***
	여자	549	4.38	1.04	

주1: * .01<p≤.05, ** .001<p≤.01, *** p≤.001

주2: 평균은 두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중앙값인 3.5보다 크면 위 항목이 더 중요, 3.5보다 작으면 아래 항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냄

다. 연령별 차이

교사의 연령대별로 직업교육의 방향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40대 교사는 30대 교사나 50대 이상의 교사보다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약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범용성 있는 기술, 졸업 후 바로 활용할 기술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역량, 보통교과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내적 역량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고교 직업교육 방향에 대한 교사 인식의 연령별 차이

교육 방향	담당계열	N	평균	표준편차	F값
특정분야 기술 vs 범용성 있는 기술	30대이하	427	4.07	1.45	3.258 **
	40대	241	3.75	1.63	
	50대이상	503	3.98	1.62	
졸업 후 바로 활용할 기술 vs 변화하는 직업세계 대응	30대이하	429	4.28	1.48	4.915 **
	40대	241	3.89	1.72	
	50대이상	502	4.05	1.68	
산업 및 기업체 요구 vs 학생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	30대이하	430	3.77	1.46	1.362
	40대	244	3.64	1.51	
	50대이상	502	3.84	1.60	
졸업 후 바로 취업 vs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힘	30대이하	427	3.93	1.44	2.305
	40대	242	3.75	1.59	
	50대이상	501	4.01	1.64	
전문교과 vs 보통교과	30대이하	426	4.52	0.99	3.102 *
	40대	240	4.40	1.17	
	50대이상	498	4.43	1.13	

주1: * .01<p≤.05, ** .001<p≤.01, *** p≤.001

주2: 평균은 두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중앙값인 3.5보다 크면 위 항목이 더 중요, 3.5보다 작으면 아래 항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나타냄

2. 직업주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 점수 집단별 차이

앞에서 직업교육의 5개 항목별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항별로 거의 일관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5개 항목을 종합할 수 있는 점수로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 척도를 구성했다. 직업주의적 인식 척도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별 응답 점수에서 중앙값 3.5를 빼서 합산했다. 직업주의 점수는 최소 -12.5에서 최고 12.5이다.

$$y = \sum_{i=1}^5 (x_i - 3.5)$$

y: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 점수, x_i: 항목별 응답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든 하위 집단의 직업주의적 목적 인식 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1.4 ~ 3.3의 범위를 보여서 대체로 교사들은 직업주의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의 평균 2.7에 대해서 단일표본 t 검증 결과, 중립적인 입장인 0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절대값은 크지 않다.

<표 6>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의 집단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t)
성별	남자	648	3.3	5.8	14.67 ***
	여자	531	2.1	5.4	
연령	30대이하	420	3.1	5.1	3.63 *
	40대	233	1.9	6.1	
	50대이상	487	2.9	6.0	
학력	석사이상	535	2.6	5.8	.50
	학사	644	2.9	5.7	
교과구분	보통교과	517	1.4	5.6	48.26 ***
	전문교과	676	3.7	5.6	
지위	부장이상	291	3.2	5.8	2.39
	평교사	846	2.6	5.8	
전체	전체	1137	2.7	5.8	(16.38 ***)

주1: * .01<p≤.05, ** .001<p≤.01, *** p≤.001

주2: 직업주의적 인식 점수의 최소값은 -12.5이며, 최대값은 12.5임.

주3: 전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정은 단일표본 t 검정(기준값 0) 결과임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교사의 직업주의적 인식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대별, 교과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성별, 연령별, 교과구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학력과 교사의 직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서 직업주의적 성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보다 더 직업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직업주의적 성향이 낮았고,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사후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나.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교사들이 직업주의적으로 직업교육의 목적을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교과,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회귀

분석을 실행했다.

<표 7>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베타	t
성별(남성 0, 여성 1)	-1.098	.363	-.094	-3.027**
연령 기준:50대 이상				
삼십대	.680	.417	.056	1.632
사십대	-.379	.464	-.026	-.818
학력(학사 0, 석사이상 1)	-.156	.348	-.013	-.448
학교 위치(수도권 0, 지방 1)	.486	.342	.042	1.419
계열(보통교과 0, 전문교과 1)	2.079	.347	.179	5.998***
지위(부장이상 0, 평교사 1)	-.327	.417	-.025	-.785.

주1). 종속변수: 직업주의적 목적 인식 점수.

주2): * .01<p≤.05, ** .001<p≤.01, *** p≤.001

R2 = .053 (adjusted R2 = .047), F=9.15***

남성이 여성보다,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보다 직업교육의 목적을 더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연령과 학력과 교과를 고려한 후에도 남교사는 여교사보다 직업교육의 이상적인 목적을 더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에서 평균 차이 분석에서 나타났던 연령별 차이는 성별, 학력, 학교 위치, 교과, 교사의 지위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유의미 하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는 연령 분포와 관련된 여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의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직업주의적 인식에 성별과 담당 교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요소들을 추출하고, 다양한 대척적인 접근들을 대비시키는 가운데, 특성화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목적을 조사하고, 집단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있었다. 직업교육의 목적을 현재의 노동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스킬을 강조하고 취업을 우선시 하는 교육 방향을 직업주의적 인식으로 명명했다. 이와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진로목표 설정 및 진로선택의 폭 확대, 범용성 있는 스킬의 습득과 보통교과를 강조하는 것과 직업주의 사이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우선시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업주의적으로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범용성 있는 기술보다는 특수한 기술이 더 중요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졸업 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조화롭고 전인적인 발달을 고려하는 것보다 중요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 중요하고, 보통교과보다 전문교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들이 현재 정책 방향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귀하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재량권이 최대한 주어진다 고 가정할 때” 라고 전제를 두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현 정책에서 강조하는 바를 대체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의 산학일체형 도제제도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부터 강조되었던 고졸 취업 정책과 부응하는 것으로, 교사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책에 조응하며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을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여교사 보다 남교사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에 비해서 더 직업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과와 경력을 통제한 후에도 나타난 성별 인식 차이의 원인은 대체로 특성화고

등학교에서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활동 및 관련 정책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이 남성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의 방향은 선불리 정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할 때, 직업주의에 치우친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중립이 0, 최대값이 12.5임을 고려할 때, 평균 2.7이란 수치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배태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임언 외(2015)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을 본 연구에서처럼 두 개의 대비되는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질문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중요성을 질문했을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교사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및 건강한 시민 교육’을 96.9%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후진학 및 평생학습을 위한 학력 배양’을 교사의 88.3%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이고,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범용적인 지식과 역량을 함께 교육해야하고, 장기적으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로서, 정철영 외(1999)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을 질문한 연구에서 취업과 교육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취업과 교육을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교사가 고교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직업주의에 치우쳐서 인식하는 것은 현재의 직업교육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직업교육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현재의 직업주의적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이것이 향후 학생들의 삶과 한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학습 체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의 기회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임언·류기락·최동선 외, 2013).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교 직업교육의 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진행될 경우,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복하고 성찰적인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anushek, Woessmann, & Zhang, (2011)은 청소년들이 이른 나이에 직업교육 트랙에 들어갈 경우,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취업률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학생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불해야하는 잠재적인 비용편익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중심, 취업 중심의 고교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함께 개인적, 사회적으로 치르는 희생과 대가에 대해서 차분한 관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많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시기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적절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현대 직업교육 역사에서 직업교육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정책이 그 다음 정책에 의해서 번복되고, 또 얼마 후에 유사한 정책이 부활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임언 외, 2015). 이는 직업교육의 방향 설정과정에서 신중하게 깊이 있는 논의가 함께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새로운 정책은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면서 즉각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종 직업교육 정책은 정권의 성공적 정책 수행의 홍보 역할을 담당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과 취약성은 뒤늦게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인이 그리고 국가가 지불해야하는 대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 마상진·나승일(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교육 가치성향 연구. 『직업교육연구』, 23(2), 41~57
- 소경희((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이동임·강경종·임언·전승환·이한별 외(2015). 『도제훈련 관련 해외사례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욱(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및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연계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일고(一考)」, 『직업교육연구』, 24(2), 133-158.
- 이용순·노태천·이병욱·김춘길(2001). 「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6(2), 70-87.
- 임언·류기락·최동선·최수정·김안국·서유정·권희경(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보고서』, 교육부.
- 임언·이수정·윤형한·정혜령(2015). 『특성화고 보통교과 및 직업기초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2001). 「해방적 직업교육을 위한 제안」. 『교육사회학연구』, 11(2), 125-143.
-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학지사.
- 정철영·이광호·최현국·정진철·고재성(1999).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직업교육연구』, 18(2), 1~25, 한국직업교육학회.
- 최동선, 임언, 최수정, 정진철(2011). 『고교단계 직업교육 경로의 유연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runer, J. S.(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New York: Vintage.
- Dewey, J.(1915). Education vs. Trade training, Curriculum Inquiry, 7(1), 53-60.
- Dewey, J.(1938, 1998). Experience and education. Indianapolis, Indiana: Kappa Delta, Phi.

- Gardner, H.(2006). *5 Minds for the Future*. Harvard Business Press.
- Grubb, W. N.(1996). “The New Vocationalism: What it is, What It Could be” , *Phi Delta Kappan*, 77(8), 535.
- Hanushek, E. A., Woessmann, L., & Zhang, L.(2011). *Gener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Labor-market Outcomes Over the Life-cycle*(No. w1750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irst, P. H.(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 2, 113-40.
- Kincheloe, J. L. (1995). *Toil and Trouble: Good Work, Smart Workers, and the Integration of Academic and Vocational Education*. New York: Peter Lang.
- Labaree, D. F. (2010). “How Dewey lost: The victory of David Snedden and social efficiency in the reform of American education.” In D. Tröhler, T. Schlag, F. Osterwalder (eds.), *Pragmatism and Modernities*, pp. 163-188. Sense Publishers.
- Lakes, R. D.(1994). *Critical Education for Work: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Norwood: Ablex.
- Lewis, T.(1998). “Vocational Education as General Education” , *Curriculum Inquiry*, 28(3), 283-309.
- Schultz, T. W.(1977).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 Karabel and Halsey(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edden, D.(1914). “Fundamental Distinctions Between Lib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 *Journal of Education*, 299-300.
- Young, M.(2009). “What are Schools for? In Daniels, H., Lauder, H., and Porter, J. Abingdon,(eds.) *Knowledge, Values and Educational Policy: A Critical Perspective*, U.K.: Routledge.